

제 1 교시

2024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3부 주제 통합 평가원화

#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이리저리 치여가며 억지로 키워낸 내 맏집**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오르비 섹시스타



제 1 교시

#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가독성을 위해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를 일종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볼 때,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의미는 그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 처리의 과정은 글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자가 효과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의 과정, 즉 독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글을 읽는 중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핵심어나 핵심 문장을 찾고, 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을 다 읽은 후에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글에서 얻은 정보나 교훈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능숙한 독자는 글을 읽기 전부터 글을 다 읽은 후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 독서 전략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성해 내지만, 그러한 전략을 알지 못하거나 잘 적용하지 못하는 미숙한 독자는 결국 의미 구성에 실패하게 된다.

글의 의미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독자는 각각의 처리 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각 단계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면 그것은 그 단계에 적용한 독서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능숙한 독자라 할지라도 모든 단계에서 항상 적절한 독서 전략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독자는 자신이 선택한 독서 전략을 통해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독서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각 단계에 적용된 독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데에는 초인지\*가 동원된다. 능숙한 독자는 초인지에 의해, 각 단계에 적용된 독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인 의미 구성을 완성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의 인지 작용은 비가시적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독자가 독서 후에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을 통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추론하게 된다.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인지 심리학자들의 분석이나 첨단 장비를 통한 뇌의 사진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의 개입을 통해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향상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외부의 개입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독자의 능동적인 독서 활동이라고 볼수있다. 독자가 독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 전략을 활용하여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그러한 활동이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이다.

\*초인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발견·통제하는 정신 작용.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미숙한 독자와 능숙한 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독서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독서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 ④ 글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단계를 나눈 후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이 외부 개입 없이 향상되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2. ㉠과 관련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능숙한 독자는 ㉠의 선택과 활용에 잘못이 있을 수 없다.
- ② 미숙한 독자와 능숙한 독자는 ㉠의 활용에 차이를 보인다.
- ③ 정보를 처리하는 각 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이 필요하다.
- ④ 독자의 초인지는 ㉠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⑤ 독자가 선택한 ㉠은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3. 윗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는 작가 싯마오의 『허수아비 일기』를 읽었다. 처음 접하는 작가의 책이라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에 띄었다. “중국인들이 가장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작가, 사막을 떠나 카나리아섬에 정착한 동방의 집사, 싯마오가 전하는 유쾌한 일상과 가슴을 적시는 감동!”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허수아비’의 의미가 궁금해졌다. 급한 마음에 서문을 건너뛰고 본문을 읽어 나갔는데, 책을 다 읽도록 허수아비에 관한 얘기는 찾을 수 없었다. 다 읽은 책을 뒤적이다 서문에 주목하게 되었다. 핵심어들을 종합해 보니, 홀로 보리밭을 지키는 허수아비가 참새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허수아비가 싯마오였음을 깨달았고, 허수아비 같았던 그녀의 삶과 대비되는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서문이나 목차 등 작가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장치들을 꼼꼼히 살펴며 침착하게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① 책을 읽기 전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독서 전략을 활용하였군.
- ② 책을 읽는 중에 제목과 관련된 의미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군.
- ③ 초인지에 의해 독서 전략을 점검하거나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군.
- ④ 책의 서문에 나온 핵심어들을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하는데 실패하였군.
- ⑤ 책을 읽은 후에 글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해 보았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석 철학자 도널드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이 있다. 첫째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감각이 어떠한지를 안다. 둘째 자기 주위의 세계들, 즉 그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그 인과적 속성에 관한 것을 안다. 셋째 타인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안다. 이 세 가지 경험적 지식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지니는데, 우선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증거나 관찰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알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자기의 감각 기관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의존 때문에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성에 열려 있게 된다.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다른 추가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지식이 대상이나 사건들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은 전혀 직접적이지 않다. 만약 타인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즉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곧 그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 역시 불확실성을 지닌다.

이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에 대해 ㉠ 어떤 학자들은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을 우선시하여 그 관계를 설명해 왔다. 이는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의 직접성, 그리고 상대적인 확실성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을 그의 행동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여 도출하였다. 물론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또 ㉡ 다른 이들은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을 기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다른 종류의 지식을 그것과 관련짓거나 혹은 그것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 데이비드슨은 데카르트에서 현재에 이르는 철학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접근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보고, 삼각 측량 논증을 통해 이세종류의 경험적 지식이 어떻게 관계하는지 설명하였다.

삼각 측량 논증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와 타인이 상호 작용하는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외부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과 삼중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슨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자기의 반응과 타인의 반응을 이은 두 선의 교차점에서 그 반응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나 사건이 고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고정된 대상이나 사건을 자기와 타인의 마음의 공통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두 선의 교차점에서 공통 원인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타인이 각자 자신의 반응의 원인을 상대방의 반응의 원인과 서로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서로 공유하는 동시에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데이비드슨은 자기와 타인이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외부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서로에게 보여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기와 타인의 마음, 그리고 그 반응의 공통 원인이

되는 외부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을 각각의 꼭짓점으로 하는 삼중의 상호 작용을 통해 우리의 사고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데이비드슨의 삼각 측량 논증이다. 외부 세계에 관한 자기의 주관성과 타인의 주관성, 그리고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해 이 둘을 연결하는 상호 주관성은 외부 세계의 객관성과 더불어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만약 자기가 외부 세계에 관해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 또한 외부 세계에 관한 자기의 사고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다. 타인의 사고를 가늠하는 것은, 자기가 그들과 같은 세계에 살며 그것의 특징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많은 반응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데이비드슨의 삼각 측량 논증에 따를 때, 전통적으로 서로 구분된다고 여겨졌던 세 가지 종류의 경험적 지식, 즉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과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 그리고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삼각대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중 어느 한 다리라도 상실된다면, 어떤 다리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4. 윗글에서 답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은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 ② 데이비드슨은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형성된다고 보았는가?
- ③ 삼각 측량 논증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④ 자기와 타인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 ⑤ 데이비드슨은 경험적 지식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5. <보기>의 ㉠, ㉡, ㉢이라는 지식에 대한 ‘데이비드슨’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는 공휴일인 오늘 동생과 함께 공원에 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나’는 ㉡ 공원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동생의 표정을 살폈다. ㉢ 동생의 생각도 ‘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 ① ㉠, ㉡, ㉢은 모두 자기의 감각 기관에 의존한다.
- ② ㉡은 ㉠, ㉢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실성을 지닌다.
- ③ ㉠은 ㉡, ㉢과 달리 추가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④ ㉠, ㉡은 ㉢과 달리 대상이나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 ⑤ ㉡, ㉢은 ㉠과 달리 관찰에 호소하지 않고 알게 되는 것이다.

6. ㉠, ㉡, ㉢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다른 지식을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으로 환원하려 하였다.
- ② ㉠은 ㉡와 달리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 중 어느 하나를 더 중시하였다.
- ③ ㉡는 ㉠, ㉢과 달리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을 다른 지식보다 우선시하였다.
- ④ ㉠과 ㉢은 모두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다른 지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⑤ ㉠, ㉡, ㉢은 모두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7. 삼각 측량 논증에 따라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기와 함께 있던 아빠가 식탁 위에 있던 초콜릿을 가리키며 아기에게 “초콜릿.”이라고 말한다. 이때 아기가 그 초콜릿을 바라보지만,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린다. 점차 아기가 초콜릿처럼 들리는 말을 하자 아빠는 아기에게 그 초콜릿을 집어 준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어느 날 아빠가 초콜릿을 말하기 전에 아기가 먼저 식탁 위의 초콜릿을 가리키며 “초콜릿.”이라고 말한다.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에게 초콜릿을 주고, 아기는 방긋 웃으며 그 초콜릿을 받는다.

- ① “초콜릿.”이라는 말을 통해 아기와 아빠 사이에 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아기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와 아빠의 마음, 초콜릿을 삼각 측량의 세 꼭짓점으로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미소를 지으며 초콜릿을 주는 아빠와 그것을 받으면서 방긋 웃는 아기는 그 초콜릿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초콜릿을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는 아기는 아직 초콜릿에 관한 자기의 사고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아빠가 초콜릿을 가리키며 아기에게 처음으로 “초콜릿.”이라고 말한 순간 그 초콜릿은 둘 사이의 공통 원인으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에는 물권(物權)과 채권(債權) 등이 있다. ㉠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 구분된다. 물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 채권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근거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물권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라고 한다. 또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상대적 권리인 채권은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제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이와 달리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물권 변동이라고 하며, 이러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물권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는 행위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에 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채권 행위는 발생한 채권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게 되지만, 물권 행위는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 그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그 채권 행위에 의해서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갑과 을은 아직도 각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또한 을은 갑에게 또 다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채무가 이행되고 나면 부동산의 소유권과 금전의 소유권이라는 두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 후에는 갑과 을에게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처럼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의사 표시 외에 일정한 공시(公示) 방법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각국의 민법 규정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사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 표시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형식주의라고 한다. 후자의 관점을 취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과 같은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통해,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를 통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의사주의는 대항 요건주의라고도 한다. 프랑스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 이전한다고 하고,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완성되어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다고 정하고 있다. 즉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 표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 표시와 구별되지 않으며,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공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이 물건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물건의 등기나 인도가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그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르는 제삼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한해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형식주의는 성립 요건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관점에서 물권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이며,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권 행위는 그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와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 표시 외에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 절차를 거쳐야 물권이 변동된다. 이러한 성립 요건주의에서는 물권 행위가 공시 절차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항 요건주의에서와 같이 ㉢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립 요건주의는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거래의 안전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 민법 역시 이를 채택하고 있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서 물권 변동은 물권 행위 없이 채권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프랑스와 독일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③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
- ④ 형식주의에 비해 의사주의에서는 물권 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⑤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은 같지 않다.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인정하는 권리이다.
- ② ㉡은 ㉠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
- ③ ㉡은 ㉠과 달리 특정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 ④ ㉠과 ㉡은 모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에 해당한다.
- ⑤ ㉠과 ㉡은 모두 그 행위가 일어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10. 독일과 달리 프랑스에서 ㉠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절차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물권 행위가 그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③ 동산은 당사자가 행한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④ 부동산은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⑤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11. 윗글에 따를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1월 2일에 갑과 을은 갑이 소유한 토지를 을에게 2억 원에 팔기로 계약하였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1개월 후 잔금 지급과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2월 2일에 을이 잔금을 지급하였고, 당일에 바로 갑과 을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3월 2일에 병과 정은 병이 소유한 자전거를 정에게 1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였고, 정은 병에게 계약금으로 1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자전거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3월 5일에 정이 잔금을 지급하였고, 당일에 바로 정은 병으로부터 자전거를 인도받았다.

- ①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1월 2일 계약 이후 갑의 토지 소유권은 소멸된다.
- ②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을은 2월 2일 등기 이전에 자신이 계약한 토지를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 ③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정은 3월 2일 계약 이후 제삼자에게 자신의 자전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독일 민법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1월 2일 계약 이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 ⑤ 독일 민법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3월 5일 자전거 인도 이후 정은 제삼자에게 자신이 인도받은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은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구상의 식물이나 동물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여 24시간을 주기로 그 모습이나 생리 작용 등이 반복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한다. 수면 주기, 호르몬 분비, 음식 섭취 및 혈압과 체온 조절에 이르기까지 유기체의 거의 모든 생리, 대사, 행동은 이 리듬에 맞추어져 있다. 유기체가 이러한 주기적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져 왔는데, 2017년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배시, 그리고 마이클 영의 연구로 드디어 이러한 현상의 작동 원리가 규명되었다.

일주기 리듬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 실험은 식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8세기 프랑스의 ㉠ 드메랑은 콩과의 한해살이풀인 미모사가 낮에는 태양을 향해 잎을 벌리고 밤에는 잎을 오므린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미모사를 며칠 동안 캄캄한 벽장에 넣어 두었는데, 그 속에서도 미모사는 낮에 잎을 벌리고 밤에 잎을 오므리는 현상을 반복하였다. 이를 보고 드 메랑은 미모사 잎의 운동 리듬이 어두운 곳에서도 지속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 후 스위스의 [A] ㉡ 드캉들은 드메랑의 기록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었다. 자연적으로 밤과 낮이 바뀔 때 미모사 잎은 24시간의 운동 주기를 보이며, 불을 계속 켜 두거나 차단했을 때에는 그 리듬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 20시간에서 28시간 사이의 주기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주기 리듬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유기체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유기체 내에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유전자 연구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1년 ㉢ 코노프카는 초파리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초파리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슬을 사랑하는 동물’이라는 뜻의 학명을 지닌 초파리의 번데기는 새벽 시간에 성충으로 우화(羽化)\*한다. 코노프카는 초파리에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위한 화학 물질을 먹여 다양한 돌연변이체를 만든 후 12시간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 12시간은 어두운 상태에서 초파리 번데기를 배양하였다. 그 결과 일부 돌연변이 초파리의 번데기는 새벽 시간에 맞추어 우화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우화하였다. 코노프카는 이를 통해 일주기 리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아내어 주기(週期)를 뜻하는 피리어드(period)라 명명하였고, 이 유전자가 초파리의 X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1984년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배시는 피리어드 유전자의 산물인 피리어드 단백질이 밤에 축적되고 낮에 분해되는 주기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피리어드 단백질이 일정 수준으로 축적되면 억제 피드백 고리에 의해 피리어드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하고, 그 결과 지속적이면서 주기적인 일주기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그들은 밤 동안 세포핵 속에 있는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피리어드 유전자의 mRNA가 생성되고, 이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하여 피리어드 단백질을 만들고, 이 피리어드 단백질이 세포핵 속에 축적되는 것까지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리어드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핵 속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 의문은 1994년 마이클 영이 두 번째 일주기 유전자인 타임리스(timeless) 유전자를 발견함으로써 해소되었다. 마이클 영은 타임리스 유전자의 산물인 타임리스 단백질이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하면 유전 물질이 있는 세포핵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타임리스 유전자의 발견으로 피드백 조절 메커니즘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었다. 피리어드 단백질의 양적 변동이 어떻게 24시간이라는 주기에 맞추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의문은 마이클 영이 또 다른 일주기 유전자인 더블타임(doubletime) 유전자를 찾아내면서 해결되었다. 그는 이 유전자의 산물인 더블타임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하여 피리어드 단백질의 누적을 지연하고, 이를 통해 피리어드 단백질의 양적 변동이 거의 24시간에 맞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후 다른 몇 가지 단백질이 피리어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 관여한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피리어드 유전자의 일주기 리듬이 매우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생체 시계 유전자를 제거한 돌연변이 생쥐 등을 이용하여 일주기 리듬의 교란에 따른 생리적·행동학적 변화를 ㉣ 밝히고 나아가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장애나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주기 리듬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야간 근무자들, 항공기 승무원들, 응급실 종사자들의 암이나 대사 질환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일주기 리듬 교란을 암이나 대사 질환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경고하고 있다. 물질대사나 심혈관계 활성화와 같은 생리적 관점에서부터 암을 ㉤ 비롯한 다양한 병리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일주기 리듬의 관련성이 속속 밝혀지면서 유기체의 일주기 리듬을 증시하는 시간 생물학의 패러다임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화: 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

12.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후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 ② 특정 현상의 작동 원리가 규명되어 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여러 가지 구체적 현상들을 종합하여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 ④ 통시적 흐름에 따라 특정 현상이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 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1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모사 잎은 빛이 없는 곳에 있어도 일주기 리듬이 사라지지 않는다.
- ② 미모사 잎의 일주기 리듬은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는 지구 환경과 관련이 있다.
- ③ 일주기 리듬은 미모사가 잎을 벌리고 오므리는 현상을 반복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미모사를 넣어둔 캄캄한 벽장은 미모사가 태양이라는 외부 자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불을 계속 켜두거나 차단했을 때 미모사 잎에 나타난 일주기 리듬의 변화는 그 리듬이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일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14. ㉠, ㉡, ㉢과 관련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실험을 통해 ㉠이 기록했던 현상을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 ② ㉢은 ㉠과 ㉡의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여 ㉠과 ㉡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 ③ ㉢은 ㉠이 기록했던 현상, 그리고 ㉡이 실험했던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를 밝혀내었다.
- ④ ㉠이 기록했던 현상은 ㉡의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 밝혀낸 사실은 ㉢의 연구를 통해 수정되었다.
- ⑤ ㉠, ㉡, ㉢이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식물과 동물의 일주기 리듬을 유발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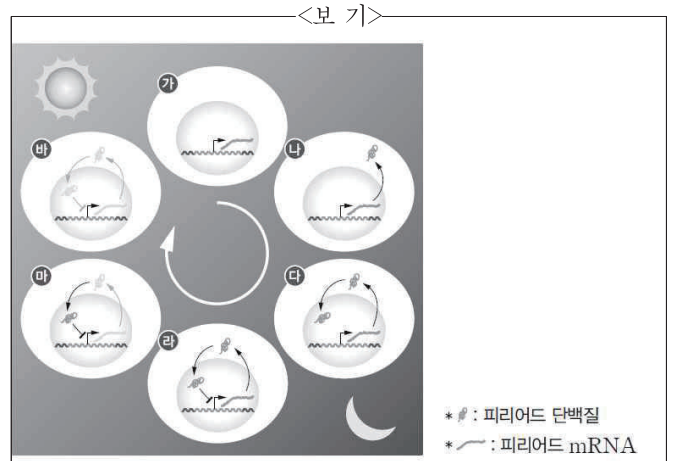
—<보기>—

ㄱ. 한국과 우루과이는 12시간의 시차가 있다. 얼마 전 나는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우루과이에 여행을 갔는데, 이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여 제대로 여행할 수 없었다.

ㄴ. 북부 알래스카에서는 여름에 82일 동안 낮이 지속된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땅다람쥐는 낮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그 전과 같은 주기로 잠을 자고 음식을 섭취한다.

- ① ㄴ과 달리 ㄱ의 유기체는 공간의 이질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ㄴ과 달리 ㄱ은 일주기 리듬에 교란이 일어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ㄱ과 달리 ㄴ에서는 일주기 리듬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ㄱ과 달리 ㄴ의 유기체 내에서는 생체 시계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ㄱ과 달리 ㄴ의 환경에 반복적으로 있게 된 유기체는 암이나 대사 질환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다.

16. <보기>는 24시간에 걸친 ‘피리어드 유전자’의 일주기 리듬을 나타낸 그림이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세포핵 속의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피리어드 mRNA가 만들어진다.
- ② 바에서는 세포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한 피리어드 mRNA에 의해 피리어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 ③ 다, 라에서 세포질의 피리어드 단백질은 타임리스 단백질이 없었다면 세포핵으로 이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 ④ 마에서는 피리어드 단백질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리어드 유전자의 활성이 억제되고 있다.
- ⑤ 라에서 바까지의 주기가 거의 24시간에 맞추어진 것은 더블타임 단백질이 피리어드 단백질의 누적을 지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7. ㉠,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우리는 밤을 거의 뜯 눈으로 밝히고 나왔다.  
㉡: 이러한 결과는 너희의 열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 ② ㉠: 그렇게 축구를 밝히던 학생이 이제 공부에만 몰두한다.  
㉡: 이장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제에 참여하였다.
- ③ ㉠: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꼭 밝히고 말 것이다.  
㉡: 학생들은 지구를 비롯하여 태양계 행성 전체를 배웠다.
- ④ ㉠: 그는 우주가 팽창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 그가 도서관에 출입을 비롯한 것은 열네 살 무렵이었다.
- ⑤ ㉠: 그녀는 언론에 이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밝히려 하였다.  
㉡: 우리는 봄이 되어 푸르러지기를 비롯한 들판으로 나갔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독자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헤르만 헤세는 「책」에서 ㉠ “이 세상 모든 책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아. 하지만 가만히 알려 주지.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과 그대에게 필요한 건 모두 거기에 있지.”라고 말했다. 이 말은 독서가 주는 행복은 글을 읽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을 읽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독서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좋은 글을 선택하는 데서 비롯된다. 좋은 글이란 독자에게 지식을 전해 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장도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어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을 찾아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좋은 글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로 독서의 목적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독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여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독서할 수 있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사색의 깊이를 깊게 만들고자 한다면 정독하며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적으면서 사고를 이어 나가는 것이 좋으며, 책에 담겨 있는 의미를 되새김질하고자 한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내용을 함께 습득하는 것이 좋다. 조선 후기에 정치·경제·과학 등의 다방면에서 뛰어난 식견을 보여 준 홍석주는 하루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다. 그는 아침에 머리 빗으며 읽는 책, 사랑채에 두고 읽는 책, 안채의 베갯머리에 두고 읽는 책이 모두 달랐으며 그 책을 읽는 방법 또한 달랐다. 가령 사랑채에서 책을 읽을 때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읽었다. 이는 그가 시·공간별로 상황에 따라 독서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글을 읽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이 훌륭한 글이라고 추천한 글이라도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특성, 독서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책을 무턱대고 읽는 것은 오히려 안 읽는 것만 못하다. 독서도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독서 전략은 읽기 전·중·후 활동과 관련해 독서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독서 전략을 잘 세우고 독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의 독서 목적, 독서 방법과 절차, 독서 습관, 독서량, 독서 성향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읽기 전·중·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독서 활동을 하는데 반영해야 한다. 독서 전략을 잘 수립하여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때로는 성찰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킨다.



1.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책을 고르기만 하다가 정작 독서를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로군.
- ②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로군.
- ③ 좋은 글을 읽으며 독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지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로군.
- ④ 수많은 종류의 책들 속에서 자신에게 행복한 감정을 전해 주는 책을 찾기 위해서는 책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를 해야 한다는 말이로군.
- ⑤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내용에 관한 책들을 아무런 계획 없이 읽기 시작하면 독서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로군.

2. 윗글을 바탕으로 ㉡의 수립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의 읽기 능력보다 추천하는 사람들의 수를 우선시하여 글을 선정한다. .... ㉠</li> <li>• 글을 읽는 목적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으로 글을 읽을 것인지를 정한다. .... ㉡</li> </ul>
읽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독서 방법이 글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지 점검한다. .... ㉢</li> <li>• 독서 목적과 관련하여 새롭게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된 내용을 중시한다. .... ㉣</li> </ul>
읽기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좋은 글을 판별하는 비판적 안목을 기른다. .... ㉤</li> </ul>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독서는 옛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반복하여 읽어 글에 마음을 깊이 붙여야 한다. 어느 순간 마음에 얻는 바가 있으면 스스로 알게 된다. 그러니 그 뜻을 글자에만 의지하지 말라. - 기대승

(나) 독서를 통해 얻는 것 중에 최상은 정신적 기쁨이요, 그다음은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널리 아는 것이다. - 이덕무

(다) 독서에서 가장 크게 걱정할 일은 단계와 순서를 뛰어넘어 빨리 이루려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글의 본뜻을 가리기에 진정한 이해에 다다를 수 없게 만든다. - 허목

(라)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바로잡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바로잡는다. 책과 거울이 항상 앞에 있으니 잡지도 바른길에서 멀어질 수 없다. - 이언적

(마) 책을 읽어 지식을 구하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필요도 없는 것을 넘치도록 읽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정제두

- ① (가)는 ‘옛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것’을 독서의 목적으로 삼을 경우 자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행간을 이해하는 독서 방법을 취해야 함을 말한 것이로군.
- ② (나)는 독서를 통해 ‘정신적 기쁨’을 느낌으로써 정신적 성장에 도모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독서의 가치를 인식해야 함을 말한 것이로군.
- ③ (다)는 ‘단계와 순서를 뛰어넘어 빨리 이루려는 마음’의 폐해를 제시하여 독서의 목적에 적합한 독서 절차를 따라 독서해야 함을 말한 것이로군.
- ④ (라)는 독서를 통해 ‘내 마음을 바로잡’으며 ‘바른길’을 지향하는 생활의 태도를 제시하여 독서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음을 말한 것이로군.
- ⑤ (마)는 독서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함을 강조하여 시·공간별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그에 구애받지 말고 독서의 방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함을 말한 것이로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풍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해 큰 피해를 초래한다.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 발전한 것으로 그 중심은 바깥보다 기압이 낮아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이때 발생해 작용하는 힘은 저기압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바람이 태풍의 중심으로 곧바로 향해야 한다. 그런데 태풍의 바람 방향을 알려 주는 소용돌이의 무늬를 보면 태풍 주변의 바람이 태풍 중심을 향해 곧장 들어가지 않고 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구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이 방향은 기압 차이에 의한 힘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떤 과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을까?

태풍의 바람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태풍 안팎의 기압 차이에 의한 압력 외에 ‘코리올리 힘’이라고 부르는 ‘가상의 힘’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힘을 ‘가상의 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가속도와 힘의 관계를 정할 때 설정한 전제 조건과 관련이 있다. 뉴턴은 제1 법칙을 통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관성을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계를 관성 기준계라고 한다. 관성의 법칙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명제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명제는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그 물체의 가속도는 비례하고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한다는 뉴턴의 제2 법칙과 관련하여 가속도가 0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뉴턴의 제1 법칙에는 모든 운동을 관측하고 이해하는 기준들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성 기준계’라고 정의한 이 기준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정한 힘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그 범위를 정해 준다. 뉴턴은 관측자를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재는 기준으로 설정했다. 가령 관측자 A는 기차역에서 있고, B는 막 출발해 속도를 높이는 기차에 올라탔다고 하자. A의 관측에 따르면 기차역은 정지해 있고 기차는 일정하게 가속하고 있다. A의 기준계에서 보면 기차역의 가속도는 0, 즉 기차역에 작용하는 힘은 없다. 하지만 기차에는 가속도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A의 기준계에서 바라본 기차역과 기차의 운동은 뉴턴의 운동 법칙과 정확히 일치한다. 반면 B의 기준계에서 관측하면, 기차는 정지해 있고 대신 기차역이 가속을 하며 멀어진다. B의 기준계에서 정지해 있는 기차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고 기차역에는 제2 법칙에 따른 힘이 작용해야 한다. 그런데 A가 관측한 기차의 가속도와 B가 관측한 기차역의 가속도가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가 서로 같다. 기차와 기차역이 주고받는 힘은 일정인데, B의 기준계에서는 기차에 비해 아주 무거운 기차역이 똑같은 가속을 하고 있다. 뉴턴의 운동 제2 법칙이 관측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뉴턴은 ‘관성 기준계에서 측정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제1 법칙에서 설정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A는 관성 기준계의 관측자인 반면, B는 비관성 기준계의 관측자이다. ㉡ 비관성 기준계에서는 뉴턴의 제2 법칙의 가속도와 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을 잇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레옹 푸코는 거대한 진자를 이용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표면은 회전 기준계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에 따르면, 지표면의 각 지점에서는 회전이 일어난다. 진자는 북극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극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하루에 한 번 회전하며, 위도 30도 위에 있는 지점에서는 이틀에 한 번 회전한다. 반면에 위도 0도인 적도 위의 지점에서는 진자의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구 지표면의 기준계는 회전하고 있는 회전 기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전 기준계는 회전 기준계 밖에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 운동을 하고 있다.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매 순간마다 원의 중심을 향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회전 기준계가 비관성 기준계임을 나타낸다. 회전 기준계의 관측자가 회전 기준계 내의 대상을 관측하면 그 대상은 정지해 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가속도는 0이고 대상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도 0이다. 그런데 이때 회전 기준계에는 대상을 중심으로 당기는 힘인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회전 기준계의 대상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르려면, 회전 기준계의 합력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가상의 힘이 있어야 한다. 원운동에 필요한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인 원심력이 있으면 뉴턴의 제2 법칙은 유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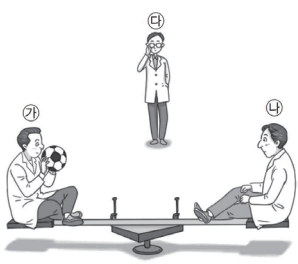
회전 기준계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에 대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원심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회전 기준계에서 일정한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관성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회전판 중심에 있는 모형 대포에서 대포알을 쏘았고 모형 대포를 떠난 대포알에는 중력 외에는 외부에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회전판 위에 있는 관측자가 본 대포알의 운동은 항상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대포알이 직진하는 동안 회전판이 그만큼 회전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포알에 작용하는 가상의 힘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고 이 힘을 ‘코리올리 힘’이라고 한다. 이 힘은 비관성 기준계인 회전 기준계에만 존재하며, 관성 기준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힘은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가 관성을 지니는 데 영향을 준다. 코리올리 힘은 회전판의 회전 속력과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한다. 이에 따라 자전하고 있는 지구에서 먼 거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태풍에서는 코리올리 힘이 크게 나타난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뉴턴의 제1 법칙은 가속도가 0인 상태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코리올리 힘은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가 관성을 지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③ 관성 기준계에서 관측되는 물체의 운동 양상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부합한다.
- ④ 원심력은 회전 기준계의 운동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준다.
- ⑤ 적도보다 위도 30도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코리올리 힘의 영향을 덜 받는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장치의 양 끝에 ㉠, ㉡가 앉아 서로에게 공을 던지고 있다. 이 장치가 멈춰있거나 느린 속력으로 회전할 때는 공이 상대방에게 정확히 도달했으나, 이 장치의 속력이 빨라지면 공이 한 방향으로 휘어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는 가만히 서서 이 상황을 관측하고 있다.

- ① ㉠, ㉡에게 각각 작용하는 구심력과 동일한 크기의 원심력이 ㉠, ㉡에게 각각 작용하고 있다.
- ② 회전 장치가 빠른 속력으로 등속 회전을 하고 있을 때 ㉠가 ㉡만을 바라본다면 이때 ㉠에게 ㉡는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③ ㉢가 회전하고 있는 ㉠, ㉡를 바라볼 때 원운동을 하고 있는 ㉠, ㉡는 매순간마다 원 중심을 향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 ④ 회전 장치의 회전으로 코리올리 힘이 작용할 때 ㉠가 ㉡를 향해 공을 던지면 공이 운동하는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 ㉡가 공을 잡지 못하게 된다.
- ⑤ 회전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 ㉡에게 공을 던진 후 동일한 공을 ㉡가 ㉠에게 더 빠른 속력으로 운동하게 던지면 이전보다 공에 작용하는 코리올리 힘이 작아진다.

6.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추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풍이 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지만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그 거리가 제한을 받기 때문이겠군.
- ② 태풍이 회전 운동을 하는 영역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유효한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혼재하기 때문이겠군.
- ③ 태풍 안팎의 기압 차로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태풍의 진행 방향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기 때문이겠군.
- ④ 태풍의 바람에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겠군.
- ⑤ 태풍 안팎의 기압 차로 발생하는 힘의 작용 방향이 회전 기준계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힘의 영향으로 본래의 작용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이겠군.

7. ㉣의 적용이 가능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트의 프로펠러가 돌아 물을 뒤로 밀어내자 그 힘에 물이 반응하여 보트를 앞으로 밀어 올림으로써 보트가 물 위를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 ②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평면 위에 있는 수박과 호두에 동일한 크기의 힘을 가해 밀자 질량이 작은 호두가 수박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다.
- ③ 야구 경기 관람을 하고 있던 서진이 쪽으로 타자가 친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야구공이 서진에게 가까워질수록 야구공이 서진에게 점점 크게 보였다.
- ④ 자전거를 타고 가던 민수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자전거는 바로 멈추었으나 진행하던 방향으로 민수의 몸이 쏠려 넘어질 뻔했다.
- ⑤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던 수호는 건널목에 가만히 서 있는 영희를 보았다. 수호는 영희를 계속 바라보았는데, 영희는 수호로부터 일정한 속도로 멀어져 갔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희의 경전 주석이 원나라 때 과거 시험의 표준이 되면서 주자학의 관학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주자학이 관학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주자학에 대해 왕수인은 지식인과 관료들의 현실을 대하는 무기력한 태도를 근거로 ‘성인지학(聖人之學)’으로서의 기능을 ㉠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사회의 엘리트였던 주자학자들은 무엇보다 독서를 통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치의 궁구를 우선시하였는데, 이에 반대하여 왕수인은 주체성을 강조하며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왕수인에 의해 제창된 양명학에서는 각 개인의 마음을 뜻하는 주체성을 무엇보다 강조해 주자학자들이 중시한 이치까지도 주체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마음이 이치다.’라는 명제로 강조된다. 양명학의 제일 명제인 이 말은 세 가지 주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는 도덕은 주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주자학에서는 만물에 객관적인 이치가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고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앞에 이른다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중시한다. 이에 대해 왕수인은 도덕의 문제는 사물에 대한 탐구와 지식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개인의 주체성에 뿌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주체성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이다. ‘마음이 이치가 있다. 천하에 어찌 마음 밖에 일이 있고 마음 밖에 이치가 있겠는가?’라는 왕수인의 말은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을 인정하며 본성과 이치가 모두 주체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개의 인간을 넘어서는 선형적인 보편적 인간성을 자연의 이치로부터 인간의 본질로 연역한 주자와 달리, 왕수인은 개별적인 인간의 주체성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본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경전이나 선현들이 주장한 윤리나 이치는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 즉 주체성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 된다. 셋째는 주체성은 존재 의미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왕수인은 모든 것의 존재 의미가 ‘나의 마음’에서 ㉡ 창출된다고 본다. 세계는 ‘나의 마음’, 즉 주체성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나의 마음’을 주체로 보면, 그 주체가 꽃을 봄으로써 꽃은 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왕수인은 지행합일을 주장했다. 왕수인이 지행합일을 주장한 계기는 실천을 결여한 당대의 지식인에 대하여 실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왕수인은 지행합일을 주장하며 ‘지(知)는 행(行)의 의도이고 행은 지의 공부이다.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라고 말해 인식과 실천의 불가분의 관계를 밝혔다. 이를 통해 볼 때, 그가 특히 중시한 것은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도교와 불교가 사회적 실천을 ㉢ 결여하기 쉽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자학도 비판했다. 주자학에서 강조하는 격물치지는 자칫 지적인면에 치우치거나 개인 수행에 그쳐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왕수인의 주장은 세속을 초월한 깨달음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음의 안과 밖은 구분될 수 없는 것이며, 수행과 삶은 분리되지 않으며, 깨달음과 실천은 분리되지 않는다.

왕수인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자아, 곧 개인의 지각과 양심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주체성은 세계와 사회의 기초이며 그것들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 입장에서 그는 ㉣ ‘치양지(致良知)’를 강조했다. 치양지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모든 일과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일종의 직관적 도덕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지가 우리 마음에 항상 갖추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들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보다 ‘궁리’, 즉 외적 대상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중시한 주자학과 달리 내적인 측면인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도의 실현은 정좌라든가 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지식이나 진리는 각 개인의 삶 혹은 실천과 불가분의 관련성 속에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양지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삶의 의미를 ㉤ 고양할 수 있다.

왕수인의 양명학은 서민의 성장과 서민 문화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요구에 ㉥ 부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자학은 매우 조직적이며 튼튼하게 이론적으로 짜여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었지만, 다른 한편 지나치게 엄숙주의와 경건주의에 빠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하여 양명학은 각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우선함으로써 인간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주자학에 남아 있던 엄숙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 양명학이 개성 해방과 개인의 창의성 회복에 기여한 것이다. 양명학이 유행한 이후 명나라 말에 문예와 역사 분야가 크게 발달한 것은 예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양명학은 주자학에 비해 엄숙함과 경건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 ② 왕수인은 수행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그것의 실천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③ 주자학이 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후 주희의 경전 주석이 과거 시험의 표준이 되었다.
- ④ 왕수인은 당대 엘리트들의 사회 문제의 해결을 등한시하는 태도가 주자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 ⑤ 왕수인은 주자학에서 수행과 삶의 미분리로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초월한 깨달음을 등한시한다고 보았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활동을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다음은 주자학의 입장에서 왕수인을 비판한 학자와 왕수인 간에 이루어진 논쟁의 일부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A: 밥인 줄 알아야 먹고, 국인 줄 알아야 마신다. 옷을 알아야 입고, 길을 알아야 갈 수 있다. 따라서 무슨 물건인 줄도 모르면서 먼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실현의 순간인 선후이지, 오늘 알아서 내일 행한다는 식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B: 사람은 반드시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다음에야 음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먹고자 하는 마음은 의지요 곧 행함의 시작이다. 또한 음식 맛의 좋고 나쁨은 먹어 보아야 알지 어찌 먹어 보지 않고 음식 맛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다른 비유도 이와 같아서 의심할 바가 없다.

- ① A에서 ‘먹고’, ‘마신다’, ‘입고’, ‘갈 수 있다’의 전제로 ‘알아야’를 제시한 것은 대상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② A의 ‘무슨 물건인 줄도 모르면서’는 ‘격물치지’에 소홀해 ‘알’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A의 ‘오늘 알아서 내일 행한다는 식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는 인간의 선형적인 보편성 때문에 개개인의 본성을 구별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B에서 ‘먹고자 하는 마음은 의지요 곧 행함의 시작이다.’는 지(知)가 행(行)의 의도이고 행의 시작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B에서 ‘먹어 보지 않고 음식 맛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실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윗글과 <보기 1>에 근거하여 <보기 2>와 같이 양명학과 실존주의 입장의 유사점을 추론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실존주의는 보편적 이성을 거부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객관적 진리가 아닌 각 개인의 주체적 진리에 주목한다. 이 입장에서 인간은 개별적인 단독자로서의 존재이며, ‘실존’은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인간 스스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한다. 이는 원래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 삶의 본질은 미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 스스로 자기 삶을 구성해 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윤리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실존보다 논리적으로 앞서는 것은 없다.

<보기 2>

양명학과 실존주의는 모두 고 볼 수 있다.

- ① 인간 개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긍정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
- ② 도덕 문제를 주체성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인간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 ④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중시한 입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 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 관한 객관적 진리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이치가 인간의 마음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 ② 인간의 마음이 그 안과 밖이 구별되는 경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 ③ 도의 실현이 외적 대상의 이치에 대한 궁구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나타낸다.
- ④ 대상의 의미는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와 독립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을 보여 준다.
- 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 ② ㉡: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냄.
- ③ ㉢: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람.
- ④ ㉣: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워서 높임.
- ⑤ ㉤: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환율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로, 통상 자국 통화로 평가한 외국 통화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이 표시 방법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환율은 일상생활 중에서 흔히 접하지만 자주 혼동을 주는 대표적인 경제 개념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수입 증가로 인해 국제 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 즉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하고, 다른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오히려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 즉 환율을 하락시킨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동일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예측은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경제학자가 상정하고 있는 환율 결정 모형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율이 고정된 수준에서 유지되는 고정 환율제와 달리 변동 환율제하에서의 환율 결정 모형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되는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만을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거래되는 외국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그 결정 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각각 유량 접근법과 자산 시장 접근법으로 대별된다.

유량 접근법에서 자주 이용되는 먼텔-플레밍 모형에서는 국제 수지를 수출과 수입의 차인 경상 수지와 자본 유입과 유출의 차인 자본 수지의 합으로 보고 국제 수지가 영(0)이 되는 균형 수준에서 환율, 즉 적정 환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경상 수지 및 자본 수지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각각 경상수지 흑자 및 자본 수지 흑자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는 각각 경상 수지 적자 및 자본 수지 적자라고 한다. 경상 수지 및 자본 수지가 모두 0인 상황에 있던 어떤 국가에서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소득의 증가는 수입재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유발하여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또한 소득의 증가는 화폐 수요의 증가를 통해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자율 수익에 민감한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므로 자본 수지에서는 흑자가 발생한다.

이때 국제 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 여부는 자본 수지 흑자와 경상 수지 적자의 상대적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이 국가가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 수지 흑자 규모가 경상 수지 적자 규모를 상회하는 반면,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 수지 흑자 규모가 경상 수지 적자 규모를 하회하게 된다. 만약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정한다면, 경상 수지 적자에 따른 외국 통화의 유출량이 자본 수지 흑자에 따른 유입량을 상회함에 따라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환율 상승으로 외국 통화로 표시한 국내 생산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의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상 수지 적자가 점차 축소되면서 결국에는 국제 수지의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한편 경상 수지 및 자본 수지가 모두 0인 상황에서 이 국가가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국내 이자율 하락으로 해외 투자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자본 유출이 발생하여 자본 수지는

적자를 보이거나 이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하여 경상 수지는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결국 국제 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재정 지출의 경우와는 달리, 통화량 변화가 환율 변화의 방향성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 이동성 수준과는 무관 하나 변화의 크기는 이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자산 시장 접근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富)를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자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국 및 외국 화폐도 자산의 일종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달리 비록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교환 매개체로서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미래로 구매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투자자들이 외국 통화 표시 금융 자산을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자산 시장 접근법의 하나인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가격이 항상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가정하에 자산으로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통화주의 모형에 따른 경우 재정 지출 및 통화량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먼텔-플레밍 모형에서의 예측과는 상이할 수 있다. 어떤 국가가 재정 지출 확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자국 통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외국 통화 표시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자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한편 이 국가가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라도 외국 역시 통화량을 증가시키기에 따라 외국 통화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환율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한다.

환율 결정에 대한 이들 모형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환율 변동 요인인 생산성과 자산 구성의 신축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상이한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내 소득 증가가 환율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먼텔-플레밍 모형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가정하에 한 경제의 총생산은 전적으로 수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 경우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요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필요하므로 결국 경상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소득의 증가는 기술 혁신 등 공급 요인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국가 경제력의 강화와 외국 통화 표시 자산에 비해 자국 통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증가를 의미하므로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먼텔-플레밍 모형에서는 거래 비용의 존재로 자산 구성의 즉각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어 환율은 기본적으로 국제 수지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거래 비용이 거의 없어 자산 구성의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고 수출입 등에 발생하는 외국 화폐의 증감보다는 자산 구성을 위한 거래 규모가 훨씬 크므로 환율은 외국 화폐를 포함한 자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환율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별 이론 모형이 담고 있는 논리적 완결성, 즉 내적 정합성과 더불어 어떤 모형이 경험적으로 현실 경제에 부합하느냐는 외적 적합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내적 정합성은 환율 모형의 필수 조건으로 이것이 결핍된 모형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국제적 자본 이동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나 국가의 경우에는 환율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유량 접근법이 실증적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이후 국제적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제 금융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유량 접근법 만으로 복잡다기한 환율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워지자 자산 시장 접근법과 같은 대안 모형들의 개발로 기존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환율 이론은 진화해 가고 있다.

13.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 결정 모형 각각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을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환율 결정 모형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예시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 ③ 환율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는 이유와 각 모형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④ 환율 결정 모형의 변화를 통해 대안적 모형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환율 결정 모형의 종류를 소개하고 각 모형의 작동 원리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유량 접근법이나 자산 시장 접근법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 갑과 을은 국내 이자율 상승이 자국 환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갑은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므로 자본 수지를 개선시켜 환율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화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융 자산이므로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채권과 같은 다른 금융 자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화폐보다는 되도록 채권을 보유하고자 함으로써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에 비해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 환율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① 갑은 일정 기간보다는 일정 시점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환율을 결정한다고 본다.
- ② 갑은 경제의 총생산은 공급보다는 수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③ 갑은 재정 지출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 이동성 정도에 따라 상이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금융 자산 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을은 국내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15.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텔-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경상 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본 이동성 정도에 따라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 ② 먼텔-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적정 환율 역시 환율과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 ③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 자국 통화의 공급량 증가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④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 자국의 국가 경제력의 강화는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의 상대적 비중을 감소시킨다.
- ⑤ 논리적 완결성과 경험적 사실을 모두 만족시키는 환율 결정 모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험적 사실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환율이 국제 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조정된다는 먼델-플레밍 모형은 경상 수지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국제 자본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강조한 통화주의 모형 역시 국내 금융 자산과 외국 금융 자산과 같은 자산 변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비중과 이들 자산 간 신속적인 조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수출이나 수입 등의 유량 변수가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에서는 자산 변수와 유량 변수의 시간에 따라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관계에 주목하여 유량 접근법과 자산 시장 접근법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동 모형에 따르면 경제 충격에 대해 단기에는 유량 접근법에 근거한 환율 변동에 따라 경상 수지와 외국 금융 자산 규모가 변하게 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접근법에 따라 국내의 금융 자산의 크기와 구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동 모형에 따라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국 통화 공급이 증가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자국 통화 공급의 증가에 따른 국내 이자율의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환율은 ( ㉠ )한다. 이로 인해 경상 수지 ( ㉡ )가 발생하고 외국 금융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국의 부(富)가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부의 증가에 따라 국내 금융 자산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함에 따라 환율은 ( ㉢ )하고 경상 수지는 ( ㉣ )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 ㉠    ㉡    ㉢    ㉣
- ① 상승    흑자    하락    적자
- ② 상승    적자    하락    흑자
- ③ 상승    흑자    상승    적자
- ④ 하락    흑자    상승    적자
- ⑤ 하락    적자    상승    흑자

17.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경제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해석과 예측은 상이할 수 있다.
- ② 먼델-플레밍 모형과 통화주의 모형에서 재정 지출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할 수 있다.
- ③ 먼델-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경상 수지가 적자인 경우라도 환율은 하락할 수 있다.
- ④ 먼델-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자본 이동성의 정도는 환율 변화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 낮은 거래 비용으로 인해 국내의 금융 자산의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가독성을 위해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수능특강 독서 3부 실전 학습 정답				
과정으로서의 독서				
③	①	④		
삼각 측량 논증				
④	②	③	⑤	
물권 행위				
①	⑤	④	③	
시간 생물학				
②	⑤	③	②	④
				③
독자에게 '좋은 글' 읽기				
③	①	⑤		
회전 기준계의 가상의 힘				
⑤	⑤	⑤	⑤	
왕수인의 주체성의 철학				
④	③	⑤	⑤	⑤
환율 모형과 작동 원리				
⑤	①	⑤	①	④

수능특강 & 수능완성 평가원화 자료가 받고 싶다면?  
 → <https://orbi.kr/profile/790404> (오르비 썬시스타)



2024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1부 교과서 개념학습  
 → <https://orbi.kr/00063596848>



2024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2부 인문·예술  
 → <https://orbi.kr/00063614166>



2024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2부 사회·문화  
 → <https://orbi.kr/00063648185>



2024학년도 수능완성 독서 2부 주제 통합  
 → <https://orbi.kr/00063884784>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유형편 독서  
 → <https://orbi.kr/00063585220>



2024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 <https://orbi.kr/00063585115>



2024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평가원화  
 → <https://orbi.kr/00063920404>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